

보도 자료

꽃비(박이슬), 보컬 출신 그룹에서 트로트 가수로, 이젠 일곱 번째 앨범 첫사랑 .광대의꿈 발표 새로운 음악적 도전과 감성을 담아 돌아오다

신세대 트로트 가수 꽃비(본명 박이슬)가 사랑을 주제로 한 새 앨범 *첫사랑 / 광대의 꿈*을 발표하며 2026년 트로트 시장에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사단 출신으로 폭넓은 경험을 쌓아온 그녀는 *눈물의 그림자*, *운명*, *물망초*, *사랑의 온도*, *길*, *오마이갓*, *노래하며 춤추며*, *연*과 *엄마의 사랑꽃*, *판(瓣)* 등 다수의 앨범을 통해 차별화된 음악적 색깔과 감성을 선보이며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이번 앨범은 '스토리어게인시리즈'를 통해 신선한 멜로디와 감성적인 스토리텔링을 담아내어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대중의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사랑과 이별, 아픔과 희망을 절제된 감성으로 풀어내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멜로디와 가사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번 앨범 제작에는 국내 최고의 프로듀서인 이원찬 감독이 직접 참여하여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인기 가수와 작품을 기획·제작한 경험을 살려 앨범의 완성도를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강혁 작곡가, 유태준기타리스트, 강수호 드러머, 신형권베이시스트 등 최고의 세션과 함께 만들어내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타이틀 곡 *첫사랑*은 레게리듬의 강렬한 멜로디와 기타, 드럼 사운드의 조화, 가사에 담긴 깊은 감동이 돋보입니다.

이 곡은 첫사랑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며, 가수 꽃비의 새로운 노래로, 이원찬의 섬세한 감성과 강혁의 감미로운 멜로디, 유태준의 기타 선율과 강수호의 드럼이 조화를 이루어 진정한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후렴구에는 웅장한 편곡이 더해져 감정을 극대화하며, 듣는 이들로 하여금 또 하나의 명곡으로 남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대의 꿈*은 가수로서의 명곡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꽃비는 뛰어난 가창력과 감정 표현력으로 섬세한 무대를 선보이며, 솔직 담백한 가사와 다양한 음악적 장르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음악성을 통해 성인 음악 팬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녀의 독창적 음악 세계와 감성적인 목소리가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첫사랑 / 광대의 꿈* 앨범은 단순한 음악 작업 그 이상으로, 가수 꽃비의 깊은 감정과 진심이 담긴 작품입니다. 세상 인연의 실타래 속에서 풀어가며 살아가는 인생사를 노래한 이 곡이 많은 이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기를 기대하며, 꽃비는 앞으로도 더욱 성장하는 모습으로 대중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